

李 “국방 의존 시대 끝내야 한다”… 자주국방 의지 재확인

李, 개막식 참석 후 토론회 주제
국방·항공우주 R&D 대폭 확대
기술 주권 확보에 예산 집중
민간·스타트업 참여 문턱 완화
국산화·시장 다변화 방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산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

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

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축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1면 ‘李 “2030까지 국방…’서 계속

AI·수소·우주로 확장된 전장… 이젠 ‘기술이 무기다’

현장르포

초고해상도 위성 첫 공개
AI 방공체계 실시간 대응
메탄엔진·수소전차 첫선
한화·현대·KAI 등 총집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차세대 전장 기술을 일제히 공개했다. AI·수소·우주 기술로 확장된 ‘K-방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한화 방산 3사(한화시스템·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는 1960㎡ 규모 통합관을 꾸려 ‘K-방산의 미래’를 주제로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은 초저궤도(400km 이하)에서 15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초고해상도 SAR 위성 ‘VLEO UHR SAR’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cm급 해상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한화는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AI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F-21 전투기용 AESA 레이다 ▲무인전투기용 공랭식 AESA ▲GA-ASI 그레이이글-STOL용 소형 AESA ▲레오나르도와 공동개발 중인 GRIFO-EK 등 4종 레이다를 공개했다.



한화 방산 3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에 참가해 최첨단 K-방산 미래 전장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A-ASI와 공동 개발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이글-STOL’ 목업을 처음 공개하고, 궤도형 무인지상차량(UGV) ‘데미스(Themis-K)’ 등 자율 무기 라인업을 선보였다. AI 기반 통합 방공시스템은 위협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 대응체계를 자동 제시하는 지능형 방어체계로 주목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로템·기아·현대위아가 함께 통합관을 구성해 ‘지상에서 우주까지, AI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메탄엔진, 덕티드 램제트,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등 항공우주용 엔진 기술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메탄엔진은 재사용 발사체에 적합한 차세대 추진체로, 현대로템은 국방기술

진흥연구소의 35톤급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플랫폼 ‘블랙 베일’, 폴란드형 K2PL 전차, 수소 차륜형장갑차 등도 함께 전시했다.

기아는 군용 지휘차량 ‘타스만’을 실물 공개하고, 병력·화물 수송용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와 드론탑재차, AI 경계차 등 특수목적차 라인업을 전시했다.

현대위아는 경량형 105mm 자주포,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대드론 방어체계(ADS), 함포 등 지상·해상 화력 체계를 선보이며, 실제 소형전술차량 탑재 시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제로 육·해·공 통합 전투체계를 선보였다.

다목적 무인기 AAP(Adaptable Aerial Platform) 실물기를 최초 공개했으며, 이는 자폭·기만·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로 평가된다. AI 조종사와 교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ACP’와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Heliborne MUM-T) 기술도 함께 전시됐다. 또한 초소형·중형·광학 위성 모형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KAI의 우주 기술력을 선보였다.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전력인 ▲저궤도 무인편대기(LOWUS) ▲중형 타격 무인기 ▲소형 협동 무인기(KUS-FX) 등 3종을 최초 공개했다.

특히 저궤도 무인편대기 시제기는 시험비행을 앞둔 단계로, 유인 전투기와 복수의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차세대 전력이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중형 타격 무인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임무자율화 기술을 적용해 무인기가 스스로 판단·임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미국 안두릴(Anduril) 등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 구현하고 K-방공망 벨트로 방산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과 국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통해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5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 전장혁명 가속”

확장현실(XR)을 적용한 작전 시뮬레이션은 전투지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항공은 AI 조종사와 유인기가 협업하는 저궤도 무인편대기를 내세웠다. 내년 2월 시험비행을 앞둔 이 기체는 위험지역 임무 수행용으로 개발 중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100시간 이상 체공하며 1000km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중형 자폭무인기까지 공개해 ‘AI 전투 드론’ 시대를 선도했다.

또한 이번 ADEX2025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이 한데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출범 이후 처음 참가한 우주항공청(KASA)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우주항공관’을 운영하며 발사체·탐사·위성·천문 기술을 전시했다. 우주항공관은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SBIR 제도(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 소개와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우주항공청은 행사 기간 동안 영국·브라질·독일·네덜란드 등과 양자회의를 열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브라질 국영기업 알라다(ALADA)와의 면담에서는 11월 첫 상업위성 발사를 앞둔 국내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협력 확대도 논의됐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 위해 에어쇼에 전력투구한다”며 “서울 ADEX는 K-방산 수출의 현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기지”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